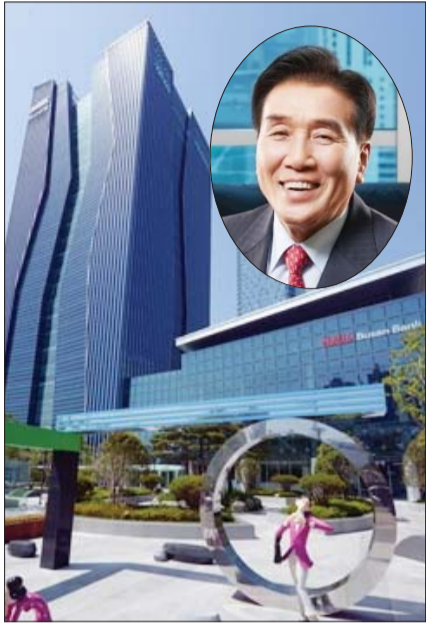


“금융경계 무너지면 개방협력”... 부·울·경의 혁신생태계

금융, 飛上 2020 전략

(6) BNK금융그룹

기업투자금융, 그룹 핵심수익원 기대
고객중심 영업문화 위해 프로세스 개선
자회사와 투뱅크 체제... 지역사회 상생
기업 지원확대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2023'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기
반 다지기에 나선다.

BNK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순이익은 5292억원이다. 직전연도 같은 기간(5393억원)과 비교해 1.9%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판매관리비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일시적 비용(309억원)이 증가한 영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증가한 실적으로 3대 지방금융 그룹 가운데 1위다.

BNK금융은 앞으로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비

이자수익인 자산관리(WM)와 은행의 기업금융(IB) 부문·증권사의 IB부문을 통합한 기업투자금융(CIB)을 그룹의 핵심 수익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이자이익은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5.6% 감소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54.6% 대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의 이자이익의 실적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은행부문을 살펴보면 그룹 이자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CIB(기업투자금융), WM(자산관리)부문의 비이자수익도 크게 증가했다”며 “금융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기에 소비자와의 높이에 맞는 혁신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BNK금융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앞서 지난 2일 BNK금융 임직원은 ‘고객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설것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김 회장은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을 먼저 생각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

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투뱅크 체제...부울경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BNK금융은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뱅크 체제를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꾀한다. 현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순이익은 각각 3559억원, 1626억원이다.

BNK금융은 계열사별, 사업부문별 협력을 통해 지역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관계형 금융을 이용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BNK만의 포용금융 실천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형 금융은 금융사가 재무 신용 등급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거래·접촉·현장방문 등을 통해 얻은 비계량적 정보로 지분투자,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강한 BNK금융의 특성을 활용해 혁신·포용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해외진출 선택 아닌 필수...글로벌부문 5% 수익달성

소비자와 소통을 통해 쌓인 노하우는 해외로 확대한다. BNK금융은 2023년까지 그룹 수익의 5%를 해외 시장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지점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은행은 중국 칭따오와 베트남 호찌민에 지점을 보유하고 미얀마, 양곤,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에 지점 개선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BNK캐피탈은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에서 소액대출 및 할부금융업을 운영한다 또 1분기 중에는 중국 난징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BNK캐피탈이 운영하고 있는 4곳의 총 자산은 지난 2018년 말 584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716억원으로 132억원 증가했다. 특히 미얀마와 라오스는 지난 2018년 말 자산이 각각 157억원, 294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306억원, 44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회장은 “해외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글로벌 수익 비중 5%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확장하고 현지에 특화된 금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방문규, 금융지원 독려 등 현장소통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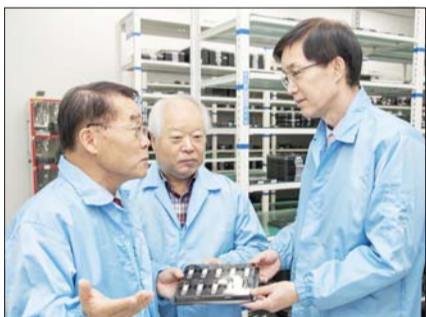
(수출입은행장)

부품 강소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올해 첫 현장소통행보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소중소기업을 찾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4일 방행장이 광주에 소재한 유·무선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오이솔루션을 방문해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오이솔루션은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부품인 광트랜시버와 스마트 트랜시버 등을 제조·수출하는 강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협업하여 광트랜시버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광소자(레이저 다이오드)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방행장은 지난해 11월 거래기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이사(왼쪽 첫번째) 박환 오이솔루션 부사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출입은행

업 및 수는 부산지점, 창원지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지원을 독려하는 등 현장소통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은은 올해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18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한화생명, 보험금 지급 여부 인공지능이 판단

3년간 1100만건 데이터 활용 강화학습 통해 지급률 생성

한화생명은 보험금지급 여부를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심사하는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AI를 활용한 방식은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의 핵심기술로 알려진 강화학습을 통해 시스템이 스스로 보험금 지급결정과 관련된 룰을 만들고 지급, 불가, 조사 등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한화생명은 과거 3년간 1100만건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활용, 총 3만 5000번의 학습과정을 통해 처리결과

정합성을 확인해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최대 약 50%까지 AI 자동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자동심사율은 약 25%로 AI 자동심사를 통하면 2배가량 높아진다. 고객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후 수령까지 기일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또 AI 자동심사를 활용하면 저위험 심사건은 시스템이 처리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의 높일 수 있다. 특히 실손 등 소액보험금 청구 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은 향후 5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AI보험금지급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실시간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보험사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한화생명은 클라우드를 자사 전산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설계를 추진했다. 이 같은 방식은 서비스의 안정성, 고객 정보보호, 비용 효율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AI 보험금지급 시스템으로 자동심사율이 높아지면 기존 심사 인력들이 난이도가 높은 심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고객 입장에서 신속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부산銀, MS와 디지털 플래그십지점 만든다

국내은행-글로벌 ICT기업 첫 협업

BNK부산은행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미래형 디지털 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래그십 지점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플래그십 지점은 국내 은행과 글로벌 ICT 기업간 최초로 이뤄지는 협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산은행이 추구하는 디지털기반 미래 점포의 공간구성 및 활용 노하우를 전달하고 플래그십 지점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디지털 채널 확대를 통해 더욱 발전된 맞춤형 서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디지털 컨시어지에 순번기 기능을 탑재해 업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객장에 터치식 태블릿 모니터를 배치해 ‘셀프뱅킹(Self Banking)’ 업무도 볼 수 있다. 생체인증 기기에 손가락만 갖다 대면 본인 정보가 태블릿으로 자동으로 전송돼 원하는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고객은 화상 상담룸에서 자신의 성향 또는 자산관리, 대출, 연체 등 업무특성을 고려한 신속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내장, 명함 등을 모두 디지털 매체로 제공하는 등 페이퍼리스도 실현된다.

/나유리 기자

코리안리 중 상해지점 설립... “중요한 거점될 것”

코리안리재보험은 지난해 12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상해지점 본인가를 획득하고 지점 설립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해지점은 1997년 설립된 북경사무소에 이어 중국 내 두 번째 거점이다. 북경사무소가 현지 시장조사, 분사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면 상해지점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코리안리는 중국 보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상해지점 설립을 검토·추진해왔다.

중국의 보험시장은 전 세계 2위, 아시아 1위로 성장했다. 지난 2018년 중국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92% 성장한 570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보험료의 11.6% 규모다.

이번 상해지점 설립을 통해 코리안리는 지점 4개, 현지법인 3개, 주재사무소 4개 등 총 11개의 해외거점을 보유하게 됐다.

원종규 사장은 “상해지점 설립은 거대한 중국시장에서 코리안리의 영업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NH농협은행

설 연휴 기간 ‘안심서비스’

농협은행은 설 연휴를 맞아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서비스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인근 영업점에 방문해 대여금고 보유 여부와 보호예수 절차 등을 사전 문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전국 194개 영업점에서 대여금고를 운영 중에 있다. 연휴 안심서비스 실시 기간 동안에는 이용수수료가 면제된다.

/안심미 기자 smahn1@